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음 10월 9일) 제21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시험 끝”... 이제 집으로



15일 전주시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환하게 미소지으며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올해 대입수능 총평... “어려웠다”

국어영역,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작문 등서 신유형 등장  
수학영역, 작년과 비슷하나 ‘가’ 형은 평가 엇갈려 · 영어는 작년보다 난이도 높아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난이도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영어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파견교사단 박문수 청원영고 교사는 이날 총평에서 “국어는 지난해와 비슷했고 수학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면서 “영어는 작년보다는 다소 어려웠지만 올해 9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설명했다.

국어영역은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수능에서는 작문과 문법에서 신유형 문제가 등장했고 문학과 독서의 난이도도 높았다.  
대교협 교사단 조영혜 서울과학교 교사는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출제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영역은 이와 수험생을 위한 가

형의 경우 평가가 엇갈렸다.  
대교협 교사단은 “전체적으로 단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 문항 구성과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평가한 반면 입시전문가들은 “고난도 문항의 문제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쉬웠다”고 분석했다.  
3교시 영어영역 시험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대교협 교사단은 “고난도 4 문제에 접근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

능성은 지난해보다 더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영역은 2018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학생 비율이 10.03%에 달했다. 상대평가에서는 4%까지 1등급이다. 이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4.19%, 9월 모의평가에서는 7.92%로 변동이 있었다.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 절대평가를 의식해 등급간 변별력을 지난해보다 더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전반적으로 9월 모의평가 수준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수능 부정행위 4건 적발... 시험 무효 처리

도교육청,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1건 · 응시 위반 3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5일 전북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4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주에서 전자기기 소지 1건, 응시 위반 2건, 정읍에서 응시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시의 한 수험장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4교시 시험을 치르던 도중 화장실을 갔다가 재입실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만일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다른 수험생 1명은 4교시 탐구영

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내놓고 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곧바로 퇴실 처분됐으며,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장은성 기자

메일 INDEX

2면 - 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 생생마을 주민들 ‘한마음’

전북도 공동체한마당 개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마을협의회 대표 500여명 참여 공동체 활성화 기여자 시상식  
생생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소개

‘제1회 전라북도 공동체한마당’이 1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생생마을 주민,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11개 시·군 중간지원조직활동가, 각종 마을협의회 대표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어려운 군산경제를 돕고자 군산에서 열린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송해안 지역활력센터이장이 참석하여 생생마을주민들과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삼락농정 및 마

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 전문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2019 생생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주민들과 현장활동가들은 ‘보이는 라디오’, ‘생생마을 만들기 도전 골든벨’, ‘시·군 대항 윗놀이 및 가위바위보’에 참가, 시군별로 준비한 마을, 중간지원조직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상호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한마당에는 생생마을만들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 경남도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생생마을만들기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마을별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려 1,000여개 생생마을이 전국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참석 주민들을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 대입 일정 본격 ‘START’

한교평, 19일 오후 6시까지 문제 관련 이의신청  
최종 정답 26일 오후 5시 · 성적은 내달 5일 발표  
내달 14일까지 대학별 수시합격자 발표 등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대입 일정으로 쏠리고 있다. 수능은 끝났지만 대입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신청을 받는다.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오는 26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12월 5일 발표된다. 이후 12월14일까지 대학별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한 학생들은 19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수시 미등록충원에 따른 합격

통보는 12월 26일까지이며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다음날인 27일까지 등록 마감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수시 등록 일정이 마무리된 후 12월29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진행된다.  
정시 합격자는 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월1일 정시 합격자 등록이 마감된다.  
정시 미등록충원에 의한 합격 통보는 2월 14일까지며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은 통보 다음 날인 2월 15일까지다.  
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추가모집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추가모집 합격자의 등록 마감은 2월 25일까지다.  
/장은성 기자

# 제17회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11월 24일(토) 오후 3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문의: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063-288-9700)